

“한우·삼겹살 너무 비싸 차라리 ...”

# 광주, 美 소고기 판매 빠르게 는다

### 대형마트 매출 신장률 한달 새 33%까지 올라

### 프랜차이즈 업소도 확산 ... 올 8곳 잇따라 개점

구제역 여파로 수입산 축산물 반입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광주지역 미국산 소고기 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물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수입(검역기준)된 외국산 소고기는 12만886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9817t보다 4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국산은 4만8831t으로 37.9%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미국산 소고기 비중 31.3%보다 6.6%나 올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미국산 소고

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수입 축산물 도매업체의 미국산 소고기 판매량도 올해 들어 높은 수치를 기록중인 한편 미국산 소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업소까지 빠르게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점포의 미국산 소고기 매출 신장률은 지난 5월 전달에 비해 32.9%나 올랐으며 봉선점과 광주점(서구 광천동)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지난해 대비 15%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광주지역 미국산 소고기 물량의 40%를 취급하는 A수입업체 관계자

는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까지 명절 때 LA갈비 위주로 판매되는 게 전부였지만 올해 들어 갈비살이나 안창살 등 구이용 제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최근에는 수입 초기보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상승해 물량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소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업소도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서울 소재의 한 프랜차이즈는 ‘갈비살 1인분(150g) 5900원·삼겹살 1인분(150g) 5900원’의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올해에만 광주지역에 8곳의 가게문을 열었다. 갈비살의 경우, 같은 양의 한우에 비하면 최소 1만5000원 가량 싼 가격으로 시장 공략을 나선 것.

전남대와 광주대 등 대학가 주변에도 ‘갈비살 1근(600g) 2만원’ 식의 플래카드를 걸고 미국산 소고기를 취급하는 자영업소가 증가 추세다.

광주대 앞에서 수입산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중인 한 업주는 “지난해 10월 문을 열때만 해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손님들의 거부반응 등을 우려했으나 국산 소고기가 너무 비싸다 보니 요즘은 젊은층 위주로 판매가 점차 늘어나는 편”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여·23)씨는 “모임 때마다 즐겨먹던 삼겹살 가격이 최근에 너무 올라 저렴한 가격의 고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수입산 삼겹살도 4000~5000원대이고, 미국산 소고기도 비슷한 가격이라 차라리 소고기를 먹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상무 한신 견본주택 줄이은 인파**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238가구를 공급하는 ‘상무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22일 오전 문을 열었다. 한신공영(시공)과 한국토지신탁(시행), 황산개발(위탁)은 이날 모델하우스 오픈 행사에서 화한 대신 받은 쌀 120포(20kg)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광주 서구청에 기탁했다.

## ‘EG the 1’ 봉선·주월동에 344가구 분양

**EG건설 내일부터**

EG건설(주)이 ‘광주의 강남8학군’으로 불리는 남구 봉선·주월동에 ‘EG the 1’아파트 344가구를 분양한다. <투지도>

‘봉선·주월 EG the 1’은 전용면적 59㎡ 52가구, 84㎡ A·B·C형 289가구, 107㎡ 3가구 등 총 344가구로 구성돼 있다.

1990년대 5만여 가구를 공급한 주택사업의 선구자(주)라인과 손을 잡고 이 아파트를 문화·예술·교육 아파트로 특화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악기연주실·레슨실·미술작품실·스크린교육실 등을 갖춰 ‘광주의 강남8학군’으로 불리는 인근 교육환경과 접목했다.

이 아파트는 기존의 아파트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평면설계를 갖췄다. 84㎡의 경우 최대 10m 이상의 초장축 거실로 변경할 수 있어

기존 아파트에서는 보지 못한 운동장처럼 넓고 새로운 평면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커다란 침실 1개와 거실만 있는 1인용 주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침실을 4개로 구성할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 공동 거주까지 가능토록 자유자재로 공간을 변형시킬 수

있는 트랜스포머형 아파트다. 단지를 잇는 도로도 상제리제품의 고급스럽고 걷고 싶은 거리로 디자인했다.

모델하우스는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인근에 마련했으며, 24일 문을 연다. 분양 문의 062-368-883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승촌보·죽산보 다음 달 시운전

### 영산강사업 완공 D-100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시설인 승촌보와 죽산보 공사를 이달말 완료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0일 현재 영산강 사업 전체 공정률은 89%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승촌보의 경우 99.8%, 죽산보는 99.0%의 공정률을 보여 이달 말이면 다기능 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준설도 전체 10개 공구 중 8개 공구가 완료돼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앞으로 수해 예방과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에 전력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익산국토청은 영산강사업 완공 D-100(9월30일)인 이날 영산강 6공구 상왕실에서 현장소장·감리단장·지자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추진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다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와인병으로 손님맞이 촛대 코르크 칼집 내 메모꽃이로

**박지현의 살림 레슨**

### ‘리자인’을 아시나요

날씨가 ‘핫’해졌다. ‘쿨’한 것이 그리운 시간이다. 와인 한 병을 꺼낸다. 스페인 음료 ‘상그리아’를 만드려 생각이다.

오렌지와 레몬 하나, 집에 있는 과일 한두가지 더 썰어 넣고 달착지근한 와인을 부어 3시간 정도 냉장고에 재워두었다가 먹기 전 사이더를 섞어 먹으면 되는데 신선한 과일 향과 상큼한 단맛이 술 못 먹는 누구라도 훌쩍이게 한다.

비운 병을 치우려 창고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내가 쌓아둔 병들이 상당하다.

와인병은 물론이고 맥주병 그리고 음료수병, 어느덧 공병 부자가 돼 있다. 큰 대야에 물을 담고 빈 병을 모두 담가뉘었다. 그렇게 놓아두면 어지간한 라벨은 깨끗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떨어지지 않은 종류는 칼집으로 긁어낸 후 세계 조금 바른 철수세미로 살살 문지르면 깨끗이 닦아진다.

씻어 둔 것들을 죽 세워뉘었다. 이제 내가 ‘리자인’ (Recycle + Designer)가 될 차례다.

꽃병의 용도는 기본이고 먼저 손님맞이 촛대를 만들기로 한다. 세탁소 옷걸이를 잘라 빈 입구에 꽃이 양초를 세워둘 기둥을 만들었다. 서너번 구부리니 병 속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입구에 고정용 걸이와 가운데 초를 세울 기둥까지 만들어지는데 제법 튼튼한 촛대로 변했다. 병 아래엔 가느다란 나뭇가지 한 가닥 끊어 리스처럼 돌돌 말아 주었다. 촛대 아래 빛나는 이파리 몇 개의 운치가 괜찮다. 병 하나엔 크리스마스 꼬마등을 돌돌 감아두었다. 무드용 스탠드다. 어떤 것은 다 쓴 삼푸 통에서 꼭지만 떼내 빈 병에 꽂았다. 주방용 세제 통 완성이다.

와인병에서 나온 코르크는 쓰임새가 더 무궁무진하

다. 가운데 칼집을 넣어 메모꽃이로 쓰는 것은 기본이고 얇게 썰어 식탁 유리 아래에 넣어 보자. 보기에 도 괜찮은데 유리기 밀리지 않아 아주 안전하다. 또 칼이나 숟가락 끝에 꽂아두면 어린이용 안전 케이스가 되어 주는데 물론 이동 중일 때 큰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뜻이 튀어나온 곳에 막아두면 독특한 벽걸이가 혹은 현관에 조르르 본드로 붙여두면 꽤 쓸데 있는 키 걸이가 된다. 사실 그동안 와인 코르크의 재활용 가능성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채택돼 ‘리자인’됐다. 코르크가 하나씩 들어갈 무수한 격자무늬 칸을 짜놓은 그 안에 코르크를 하나씩 채워 넣는 방식의 의자와 테이블이 선보이기도 했고 아예 코르크만 우르르 몰아넣은 양파 포대 형 의자도 봤다. 1930년대 세계적인 구두 디자이너 살바토레 페라거모는 와인 코르크 여러 개로 구두굽을 만들었다.

물자가 부족한 시대에서 나온 발상이라는데 아들 다음과 발의 충격을 완화했다는 평을 들으며 심미적 기능,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고 2년 후 전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했다. 그리고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쓰레기도 명품이 될 수 있으며 ‘빈티’가 ‘빈티지’로 변하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듯하다. 하여간 이렇게 주위 만든 것들로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졌다. 그것 뿐인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지구 식하기에 일조한 듯 싶어 마음도 즐겁다. <담당자의 열 두 달 살림> 저자 jazzchants@hanmail.net

## 경남스틸, 광양에 연산 40만 강판공장 준공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경남스틸이 광양에 연산 40만t 규모의 강판 가공공장을 짓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남스틸은 22일 광양시 태인동 장내국가산업단지 내 1만6080㎡ 부지에 180억원을 투자해 연산 40만t 규모의 강판 가공 공장을 준공,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광양공장에는 후물 및 미니 슬러터, 셰어 등 강판을 절단·가공하는 설비가 있다.

강판 제품은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등에 납품할 예정이며, 원자재인 냉연 강판은 포스코로부터 공급받는다.

경남스틸은 지난해 2600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해 350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최충경(65) 대표이사는 “광양공장



22일 광양 정내산단 내 경남스틸 광양공장에서 최충경 대표이사, 이성용 광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스틸 냉연강판 광양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신설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폭넓은 가공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이사는 경남상

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박정욱기자 py4079@

### 전남 5월 무역 적자 12억달러 ... 30개월만에 최고

전남지역 5월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8년 11월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세관이 내놓은 ‘2011년 5월 광주·전남 무역 동향’을 보면 전남지역의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는 11억 9800만달러로 지난해 2008년 11월 12억 9100만달러의 적자 이래 3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남지역의 주요 수입 원자재 인 원유와 철광 등 에너지류의 수입량 증가와 가격상승 때문이다. 전남의 수입품목 중 58.8%를 차지하는 원유의 도입 가격은 4월 배럴당 113.5달러에서 118.9달러로 4% 올랐고, 수입량도 8% 증가해 수입액이 12.7% 늘어난 데다 전체 수입량의 10.1%를 차지하는 철광은 전월보다 수입량이 13% 늘어 수입액이 24.8% 증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
|-------------|------------------|
| ▲ 코스피지수     | 2063.90 (+15.73) |
| ▲ 코스닥지수     | 463.77 (+4.20)   |
| 금리 (국고채 3년) | 3.67% (0.00)     |
| ▼ 원·달러 환율   | 1073.90원 (-5.00) |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SINCE 1982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www.kjhr.com